









# ★카다피 독재의 종말

## - 리비아에도 민주화의 봄은 오는가?



리비아의 지배자가 세계 최장기간의 독재를 행했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결국 10월 20일 전투 중에 사살됐다. 최장기간 동안 독재자로 군림하였으나 다른 독재자들의 부패함을 싫어도 혁명적인 카다피처럼 비범하게 개혁을 꿈꿔 다녔다 혹은 독재자가 없었다. 세계 7위의 유전을 가진 리비아를 지배했었기에 전문학적 인 재산을 소유하며, 호화로도 살을 살 수 있었으나, 반대로 그 석유로 인해 세계 강대국들의 포착이 한 겹이 없지 않다. 무아마르 사람들에게 리비아란 무아마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석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나라일 뿐일 것이다. 이런데 카다피의 발전과 리비아 혁명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혁명가에서 독재자가 되기까지



▲ FCID의 생전 모습

1942년, 카다피가 태어났을 때, 리비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다. 1965년 유엔 결의안을 통해 리비아는 독립을 하였으나, 이드리스 왕이 통치하였던 리비아는 인정과는 거리가 있는 국가였다. 이탈리아가 제국의 식민지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통치의 잔재"의 유적이던 리비아는 유엔 결의안으로 법적 식민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었다. 1959년 리비아에서 열린 "검은 황금"은 다시 리비아를 서구 강대국들의 새로운 식민지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드리스 왕은 무능해졌고 막대한 석유에 의한 이익은 리비아 국민이 아닌, 소수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었다.

카다피는 1965년 시군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그 시기에 이드리스 국왕이 영국을 방문하였는데, 피델로 참여하여 이드리스왕과 영국 수상과 만남을 보게된다. 그 때, 카다피는 이드리스 왕이 리비아의 이익을 위하여는 도움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이 후, 카다피는 조국으로 귀환하여 나세르의 신념에 따라 일교들을 조직하여, 1969년 9월 1일 국왕이 퇴위케 해낸 틈을 노려 반란을 성공시켰다. 그의 나이 27살 때의 일이었다. 검은 이후 철저한 반역을 취하며 여군 기지를 철수시키고, 옛 중추국인 이슬람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추방시켰다. 또한 외국계 석유회사를 내로고 석유를 국영화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였다. 한편무엇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알수 군지, 아랍사회주의에 따른 집단주의의 제도를 구성하였다.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내에서 참정 정치, 인종차별, 폐지, 핵실험 등의 의욕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카다피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무아마르 10년 후인 1979년이었다. 카다피는 70년대 중반부터 아랍의 반미국, 반이스라엘 감격노선을 주도하였다. 급기야 1979년에 카다피를 지지하는 시위파가 트리폴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돌을 던지기 하고, 이에 미국은 리비아와 단교하고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렸다. 이러한 반미국, 반이스라엘 노선은 80년대 후반부터 꺾을 무르거 세웠다. 1985년, 제1차 리비아로 로마 인 공약의 이스라엘 항공사를 습격해 17명이 사망하고, 86년 4월에는 여군들이 유물을 옮기던 베틀을 찢어 술집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1988년 12월 런던에서 출발한 뉴욕행 항공기를 폭격하여 270명이 사망하였다. 카다피가 여러 공격을 주도하는 것을 거부하자 당시 미국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은 카다피를 "테러리스트, 미친 개"라고 공격적으로 비난하며, 경제제재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국영화한 석유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카다피에게 큰 충격을 주는기는 힘들었다. 이러한 카다피의 행동에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지원을 끊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공습을 발했고, 이 과정에서 카다피의 암살이 시작되었다. 이에 카다피는 미국에 의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먼저 아랍계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



▲ FCID의 생전 모습

게 한다.

이 후로는 조용히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심지어 9.11테러 이후, 미국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03년 공개적으로 반미감정을 중단하고, 모든 대미상징물기를 자진폐기하고, 미국의 경제 협조를 받았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2004년 탄압이 태의 용의자를 미국에 인도 하에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시켰고, 이에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 숨겨진 리비아 혁명의 순간



▲ 2011년 2월 15일 리비아 혁명 시위 모습

2011년 2월 15일, 무국통인 운동가 반호사의 혁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리비아 제2의 도시 벤지에서 발생하였고, 경찰과 친정부 세력까지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38명이 부상하였다. 또한 당시 정부를 지지하는 원진도 리비아 전체에서 있었다. 벤지에서는 원진도 리비아의 총통이었던 리비아를 폭도치를 하였던 시리아는 수도로 정해져 있었으며, 카다피에게 복귀한 이드리스 국왕의 고향이기도 하다.

중 한 곳으로, 카다피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였다. 결국 리비아 정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위파의 석방 요구에 따라, 다음날 16일에 무국통인 리비아 이슬람 전투 집단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약칭 LIFG) 구성원 110명을 석방하였다.

그러나 16일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하여 반정부 세력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17일에는 '눈노의 날'로 선포되어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하였다. 16일과 17일의 반정부 시위에서는 보안군의 탄압으로 24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이런 반정부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17일에 수천명의 친정부 세력도 트리폴리에서 집회를 열었다. 치안 무대에는 리비아군 뿐만 아니라, 외국인 용병까지 투입되었다. 18일에는 벤지파에 군이 배치되었다. 이날 벤지파를 비롯한 5개의 도시에서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치안 무대는 이를 살전으로 진압해 35명이 사망하였다. 총 사망자는 84명에 달했다. 18일에는 벤지파 폭력에 있는 도시 일리야에 반정부 시위파가 잠입했으며, 친정부 세력도 2명에게 처형되었다. 19일에도 벤지파에서 시위가 발생해, 많은 수감자가 감옥에서 빠져 나와 경찰서에 반항하였다. 또한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식에 모인 반정부 시위파에게 보안군이 무차별 발포해 사상자가 속출하였고, 시위 참가자는 수천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20일 총 사망자 수가 250명에 달했다. 2월 21일에는 미합중국 반정부 세력인 트리폴리까지 확산되어 장구 기간인 인민 홀(People's Hall), 숭인인민회 건물, 경찰서 등이 불길에 휩싸였다. 또 이날 트리폴리와 근교 도시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대해 리비아 정부도 많은 공습을 자제해, 이 공습으로 250명이 사망하였다. 동시에 죽고, 열의 불타, 기관총, 수류탄, 중화기, 대포 등 다양한 공격까지 동원해 시위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사실상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시작되었다. 용병과 폭도도 발생했으며, 조집도 중단되었다. 이러한 리비아 정부 일각의 대응도 단



▲ 리비아의 반 카다피 운동은 2011년 2월 15일 시작되었다











'Passion'

세 살도 초

경북대 치전원

'Fashion'

소모임들

11월 14일 / 10월 14일

어떤 학업에도 깊은 취미 혹은 같은 관심사 하나로 끈끈하게 뭉친 사람들이 있다. 뜻이 맞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다. 경북대 치전원 최고의 열정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임을 조명해본다.

감성 100% 충전, 느낌을 나누다

- 문학예술경영 감성 소모임 '겨울극장'

공인 속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과 만나게 된다.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은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서로 주인공과 배

우한 상황과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적이, 그리고 살았던 적이 있다. 다양한 순간들을 나누기 위해 함께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모임 '겨울극장'이 있다. 이 모임의 회장인 11학년 주성우 학생은 "저를 기억은 영화를 재밌게 보아 서로 소통하는 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서로 학업에 비보다나니 일상적인 인사를 묻는 대학

원하는 질문 대학원 거다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공간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 커다란 사회적 이슈 때

는 버겁게 소통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영화를 감상하고 느낌을 나눌때는 생각보다 서투르게

되곤해요."라고 했다. 처음에는 영화로 시작할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와 유지함과 같은 다양한 공연까지 섭렵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마니 서브정기적으로 줄어드는 새로운 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대에 다스리고 있다. 학교 일정에 따라, 그리고 행사에 따라 요일이 바뀌어 정기적인 모임은 없지만, 이들의 모임은 항상 일관된 주인의 힘이 가슴에

저루저루 쌓인다. 감성을 통해 서로의 취미와 기쁨을 신나게 나누고 싶어한다.



11월 14일 / 10월 14일  
문학예술경영 감성 소모임 '겨울극장'

명동본의  
기회 있는  
내년 이듬해 봄을 향한다

- 11월 14일 '독본'

11월 14일 / 10월 14일



11월 14일 / 10월 14일

학부대에서 가장 성공한 출판자 및 제1차 대학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서점 나

무 읽은 책을 읽어 세상에 팔아 나가 그 자식들을 사서도 집중하고 싶었다." 독서를 통해 세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독본"의 취미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닐까?

독본은 해당 회원 한 사람이 스스로 추천한 책을 회원 모두와 함께 읽고,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소모

임이다. 11학년 이영진 학생은 독본의 취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학부에도 수업이 많은 고수생을 보게

되지만, 독본에서는 우리의 전공이 아닌 사회, 문화, 예술,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주제에 책을 접할 수 있

##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 '몸사랑'

· 하이브리드형 소모임



▶ 다양한 OAD 운동에 특  
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동행합니다(이선)

▶ 하이브리드-태권  
수술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선)

매일 반복되는 수업과 숙제를 하다 보면 건강에 넘치는 큰 육체 활동은 어느새 이루어지 않는 곳이 많다. 배가 나오고 어깨가 결리고 무릎, 손목 자칫, 집중력 저하, 허리디스크, 관절염에 해당 할때까지 증상발현이 되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 할 거라도 없는데 운동은 무슨"이라며 드려눕는다. 체포의 학습본이다. 1학년 박석진 학우는 체포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운동을 하면 체포가 줄고 숙제를 칠 수 있습니다. 밤에 공부해도 고쳐없는 체포의 단골어입니다. 슬로 스포츠를 푸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을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박석진 학우는 '몸사랑' 소모임의 회장이다. "교육 전도사"다.

몇몇 이들은 삶을 위한 고성을 쉼 없이 하고 있다. 몸으로 유명한 가수 김용국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처럼 운동은 시경과 노력을 무지한 단련한 거울 수 있게 될 있는 정직함이 이해하려고 몸사랑 회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한다. 특히 박석진 학우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운동을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건강은 자기가 생긴 내서 챙겨야 하는 겁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 때문에 바빠서 운동 못하고, 졸업하고 나면 일 때문에 바빠서 운동 못한다고 하던 말씀 운동 못합니다."라며 시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눈에 보이는 신체 변화를 얻기 위해서 습관적 이상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회원들간에 서로 도와  
몸사랑을 합니다.



## '불링볼링'

· 학생 소모임

불링볼링은 전세계 체육 종목 중 하나이지만, 우리 대학에는 불링볼링 동아리가 없다. 비록 불링볼링이란 제각적으로 계승을 받고, 꾸준히 연습을 할 수는 없어도, 불링볼링에 대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불링 소모임 불링볼링회 회원들이다. 2019년 10학번의 소모임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11학번 학우들도 함께 참여해, 격주로 근교인 마포로 모임을 갖는다.

운동 소모임이다 보니 스포츠스도 좋고 건강까지 좋아지는 것 같다"는 이들은 "반복을 다져야하는 역시 운동이 최고"라고 말한다. "볼" 소리와 함께 한 회원이 스트라이크를 치니 불링볼링 안에 호응이 가득 퍼진다. 이자영 학우는 "이제는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권 하나 내내 집중하고 힘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내 앞에 놓인 고난이후 역경을 헤쳐 나가는 기분이다."고 했다. 불링볼링을 하면 선의의 경쟁도 하게 된다. "볼 떨어 시합을 해서 불링볼링이 흥분수 비를 나눠요" 처음 불링볼링을 시작했을 때는 공이 회전 시대로 많이 비정지만 다들 (?) 그에 대한 열정은 많았다는 이자영 학우의 귀담이다.

학선이 다들 다들 오일 기피가 자주 생각지는 않지만 불링볼링이 시간을 내어 사람들이 함께 공을 굴리고, 나아가 내년 전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스포츠스도 불링볼링과 함께 늘어 보내고 싶다면 이자영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



▶ 다양한 OAD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불링볼링을 할 수 있다



▶ 불링볼링 동아리 OAD 회원



**XOSA**

3학년 선배님들의 한나샘 진로과 4학년 선배님들의 국시 결과를 기원하는 행사로 지난 달에 가졌습니다. 당분간 동아리 활동과제에 전념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11월 25일 금요일에 철거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내시로 위해 선공명들을 보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조식**

9월 초 계단승차를 통해 새 회장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국시 100명 및 9월 4학년 조식 선배님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개했고, 지난 5월에는 한울문당에 복지관으로 진로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규혁 지도교수님, 손근태 선생님 참석하여 MOU 체결 협정식을 거행하고 기본적인 수칙서 및 CB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회의수정도 이루어졌습니다.

**KLOR**

2학기는 1학년을 시험관제로 바꾸기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대학 대학을 통해 1학년과 2학년에 어울릴 수 있게끔 진행해보겠습니다. 2학년에 60% 이하로 내우지 않습니다. 할애 받은 책수 등에 따라 드롭됩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계단승차 및 PK, 진영서과 국시 100명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학사**

**맞춤달을 온손도슨**

4기로 유명한 정보도슨이라는 2학기까지만 1학년들이 참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주원들과 함께 하는 선배님들을 축하해 드리고 곧 개원할 예정이며 스쿨다도 환영을 마칩니다. 이번 개원식에서 주제는 '이름'입니다. 발표에 주원들의 개성있고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책자에 담기게 될 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번 행사에서도 발표대상만 있을 수 있는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별포마**

**2&3**

지난 9월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이규혁 교수님과 함께 순례오리를 목마의 물고기 계단승차를 마쳤습니다. 또한 교수님과의 소담 10월에는 가을의 교수님 9월, 남자를 방문하여 도대들을 꾸미기 온손도슨 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차순 겨울, 눈이 제 달입니다. 1월 달에서 2월 초로 스노우부드러 스키를 타러 갈 예정입니다.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도 좋은 수확을 맺고 싶습니다.

**현우회**

2학기까지만 현우회 활동은 종료되었습니다. 토요일 주말 대대 앞에서 산주 활동을 하였으며, 228 군민대회는 모자를, 통일로 스타벅스에서는 이왕의 환경을 하고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시켜먹었습니다. 4학년 선배님들의 국시 때 책을 판매하던 것을 잊지 않지요. 최근에는 내년 2월 현우회 승리를 위해서 봉사 시간 동안 새길 명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세수도 계속 하고 있으며 현우회의 가을은 이젠 더 길습니다.

**허니케인**

1학년 최성준 학우가 새롭게 허니케인 회장입니다. 당선되어 동아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파다 최인호와의 시상에서 1:0으로 승리하였으나, 국제선수들이 2시간을 뛰어온 동아리인 이만큼의 수고와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알파다였던 인연, 허니케인, 현우회와 시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꼭 승리하길 기대합니다.

**2학기**

동아리 개원 기념식인 동원제를 지난 10월 16일에 개최했습니다. 동원제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선배님들 지원자들이 모여서 하우스를 짓는 날입니다. 올해는 많은 가을 날에 피다 하우스 코트에서 열었고 지도교수님인 이항복 교수님의 연설이 있었으며 많은 선배님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매우 중요한 동원제를 통해 각자의 실력을 겨루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본교에서 개최하는 학부의 하우스 대회에도 응원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모두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학년 선배님들의 국시 결과를 기원하며 국시 100명 행사를 위해서 아무입니다. 내년 선거의 대선 출마를 위해 단체 연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봄을 생각하여 모듬도, 귀은 명함을 준비합니다.

**12**

12월에 승리의 날 공변 준비로 바쁜 시간 차용에도 흔들림 없이 연습해주는 우리 동아리들을 위한 사랑해요~연재~ 열정을 펼치자고 A21 이번 공연도 대박입니다. 그때까지의 새해 고고고~